



가정집 방문마다 환영받던 홈쇼핑으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남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출발명IC 영수증 프린트 게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asty.co.kr 0801 320-7700

개막식 리허설 사상 최대의 '불꽃 쇼'



경기장 밖 베이징 시민 환호

철통 보안... 기자들도 각서 쓰고 입장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2차 리허설이 모든 종류의 카메라 휴대가 금지되는 철통보안 속에서 지난 2일 밤 주경기장인 나오차오(鳥巢)에서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3일 보도.

이날 개막식 리허설은 나오차오와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에서 절정을 이루며 개막 행사는 사상 최대의 불꽃잔치가 될 것임을 예고, 개막식 최종 리허설은 5일 밤 진행될 예정.

한편 베이징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개막식 1차 리허설 세부장면 사전 유출과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날 리허설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에 무장경찰 병력을 배치해 경계를 한층 강화, 기자들도 카메라를 일체 휴대하지 못하고 리허설 장면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고서야 경기장 입장이 허용.

북한, 올림픽 첫 여자응원단 파견

○북한이 올림픽 대회로는 처음 베이징 올림픽에 여자 응원단을 보내기로 해 주목.

북한 여자응원단은 4일 선양(瀋陽)에 도착, 북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에 여장을 풀고 6일 선양 올림픽체육센터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자축구 대 나이지리아 전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

북녀응원단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춤과 노래, 취주악을 동원한 일사불란한 응원으로 외국 언론과 관광객들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응원단을 상대로 한 시위 등 '불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중국 공안당국은 응원단 경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만전.

박태환 "세계 기록 깨겠다"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기 위해 마침내 결전지인 중국 베이징에 입성.

박태환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께 베이징의 관문인 서우두 공항 입국장에 첫 발.

박태환과 함께 노민삼 대한수영연맹 경영대표팀 총감독이 이끄는 대표선수 19명도 함께 도착.

단복을 깔끔하게 차려 입은 박태환은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긴장한 표정없이 입국장에 불린 취재진을 향해 밝은 미소.

이날 서우두 공항에는 박태환의 입국 장면을 취재하려는 방송사 및 신사 취재진이 50명 이상 몰려 북새통.

박태환은 인터뷰에서 "아픈데 없이 컨디션은 매우 좋다. 자유형 400m 세계 기록에 맞춰 훈련을 해왔다. 최선을 다해 그 기록에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베이징 입성 첫 날인 3일 베이징 국립아쿠아티움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